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Okanagan college의 위치는 캐나다 킬로나에 있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는 작았고, 시설을 깨끗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교에 있는 국제 교류처나 글로벌 빌리지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ESL 이라는 영어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주로 발표를 위한 수업이었다. 수업 방법은 매일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파트너가 정해졌으며, 주제가 주어진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서로 얘기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분반은 하지 않았으며 강사는 외국인 강사로 매우 친절하고 발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거 같다. 그리고 과제는 많은 편이었다. 거의 항상 과제가 있었는데, 홈스테이 가족들의 도움을 요하는 것들이 많았다. ESL 교수님은 수업준비를 항상 철저히 해 오셔서 매일 새로운 활동을 즐겁게 할수 있었던거 같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li> <li>- 와이너리투어 : 킬로나는 와인이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 곳에 가서 직접 포도농장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수있었다.</li> </ul>

하지만 겨울에 가서 포도를 볼수가 없었으며, 올해에는 포도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스와인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추가비용은 없었다.

- 스케이트장 : 실외 스케이트장이었는데,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미있게 탔던거 같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핫팩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스케이트를 빌리는데 돈이 들었던거 같다.

- 볼링장 : 원래는 H2O 라는 워터파크를 가기로 예정이 되어있었으나, 학교 측에서 수영복을 챙겨오라는 말이 없어서 많은 친구들이 수영복 준비를 못한 결과 볼링장으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다. 볼링장은 한국과 다르지 않았고 재미있었던거 같다. 추가비용은 없었다.

- 아이스하키 관람 : 아이스하키 관람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곳에서 캐나다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룰은 잘 모르지만 쉽게 알수 있었던거 같아 즐겁게 관람했던거 같다. 추가비용은 없다.

- 스키장 : 실버스타라는 스키장에 가서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타게 되었다. 한국과는 다른 눈의 질감과 주변 산들과 어울러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나니와연대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스키나 보드를 정말 잘 타는 사람이 가게 된다면 매우매우 좋아할 것 같았다.

- 컬링 : 저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연히 알게된 종목이었는데, 내가 직접 하게 되어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던거 같다. 그리고 강사님이 친절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덕분에 쉽게 컬링이라는 종목을 즐길수 있었던거 같다.

- H2O : 원래는 취소된 활동이었지만 친구들과 따로 가게 되었던 곳이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H2O가 매우 즐겁고 꼭 가봐야 할곳이라고 해서 가보았지만, 내 기대가 너무 컸던것인가.. 그곳은 매우 작았었고, 단 15분이면 그곳에 있는 모든 활동을 할수 있었던거 같다. 그래도 한번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비용은 락커이용값만 필요하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3주 동안의 날씨는 구름이 많이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가끔의 맑은 하늘은 매우 이뻐다. 그리고 나는 부츠를 따로 챙겨가지 않았는데, 만약 겨울에 가게된다면 부츠를 챙겨갈 것을 추천한다. 그곳은 눈이 많이오고 잘 녹지 않아 항상 눈을 밟게 되었는데, 양말이 항상 젖게 되어서 매우 발이 시려왔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그곳은 매우 안전한 곳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도 엄청 늦게는 혼자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찍 하루를 마감하는 캐나다 사람들로 인해 7시만 되어서 깜깜해졌기 때문이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v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내가 3주 동안 지난 홈스테이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내가 혼자 지내던 층은 1층이었다. 시설이 매우 좋았고 화장실도 혼자쓰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편히 지냈던거 같다. 그리고 분위기는 화목했고 항상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가족들이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에 대해 저녁식사 시간마다 서로 질문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영어 실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규칙은 학교를 다니는 월~금 까지는 10시전에 들어와야 했고, 샤워는 최대 7분까지 가능했다.</p>
식사	<p>학교식당( ) 홈스테이 ( v ) 외부식당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마다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을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과일, 토스트, 베이글 등을 먹었는데, 시나몬 베이글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거 같다. 점심은 매일저녁 홈맘이 저녁을 만들기 전 챙겨주셨는데, 샌드위치나 과자, 요거트, 과일등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홈맘이 요리를 해주셨는데, 매일 저녁마다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 홈맘이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라서 3주동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매일 버스를 30분동안 타고 다녔는데, 버스 시간이 1시간에 1대씩 다녀서 그점이 불편했다. 그리고 버스안에는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항상 밖을 잘 살펴 보거나 구글 맵을 켜서 확인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자주 버스가 제시간에 오지않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로 인해 집에 늦게가게 되거나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된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버스 번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300000 원	현지인들에게 추천받은 식당
기념품	500000 원	여러 가지 기념품
합계	2,300,000 원	원래 100만원을 환전 갔으나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80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다.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3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올수 있을 것이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서 3주 동안 지내면서 새로운 문화를 내가 직접가서 겪게 되었다는 점이 일단 제일 장점이었던거 같다. 그곳에서 지낸 3주는 꿈같이 빨리 지나갔는데,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집 밖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거 같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캐나다를 떠나기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던거 같다. 그리고 캐나다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느긋하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던거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항상 나는 "빨리, 빨리, 빨리"를 외치고 살았던거 같은데, 그곳에서 지낸 3주는 나또한 모든일에 천천히 행동했던거 같다. 그래서 이점이 나에게 있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거 같다.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한번은 내가 학교가는 버스를 놓치게 되어 한시간 동안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할머니 한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냐고 물으셨고, 나는 이틀째 되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할머니께서 특유의 제스처를 하시며 너 정도면 무척이나 잘하고 있는거니깐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이 될거라고 응원을 해주셨다. 그때 나는 그 할머니에게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캐나다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이웃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 향후 계획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토익공부를 할 것이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H2O 대신 볼링장에 갔다.



실외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아이스하키를 보러갔다.



친구네 집에서 홈파티를 했다.



컬링을 하러 갔었다.



마지막 점심을 먹으러 리조트에 갔었다.

